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8. 24.(월) 08:00 배포 2026. 8. 24.(월) 08:00

국민이 만든 멜로디, ‘국민주권정부’ 대표 음원 된다

- ‘국민의 멜로디: 징글 공모전’ 수상작 38편 선정, 총 1,454편 접수
- 전문가 심사와 국민 9,923명의 투표 거쳐 시상, 정부 정책홍보 영상 등에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국민이 직접 만든 멜로디를 정책홍보 영상 콘텐츠의 ‘징글*’로 활용하고자 ‘국민의 멜로디: 징글 공모전’을 진행하고, 최종 수상작 38편을 선정·발표했다.

* 징글(jingle): 특정 브랜드나 메시지를 짧은 소리나 멜로디로 표현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쉽게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음원

지난 6월 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개인 또는 팀별로 한 작품씩, 총 1,454편을 출품한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국민소통실은 광고음악 전문가와 정부 부처 디지털 소통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두 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창의성과 적합성, 대중성,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 38편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상위 8편을 국민투표 후보로 확정했다.

상위 8편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투표(8. 3.~19.)에서는 총 9,9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심사 결과 70%와 국민투표 결과 30%를 합산해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5편의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대상 수상작에는 50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작에는 각 200만 원, 우수상 수상작에는 각 50만 원, 장려상 수상작 30편에는 각 3만 원 등 상금 총 1,240만 원을 수여한다.

대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전통음악 요소에 피아노, 현악기 등을 조화롭게 구성

대상은 김정민 씨가 작곡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가야금과 해금, 사물놀이, 판소리 등 전통음악 요소에 피아노, 현악기 등을 조화롭게 구성해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앞으로 국민주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문 편곡을 거친 수상작을 각 부처 정책홍보 영상 콘텐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소통실 이정은 디지털소통관은 공모전과 국민투표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하며, “정책홍보 영상이 더욱 친근하게 국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와 함께 ‘징글’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의 멜로디: 징글 공모전’ 수상작 안내

담당 부서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	책임자	과장	안길찬 (044-203-3061)
		담당자	사무관	이민지 (044-203-306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국민의 멜로디: 징글 공모전’ 수상작 안내

※ 징글 음원은 공모전 페이지(korea.kr/1st_jing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수상자	작품명	수상자 작품 설명
대상 (1명)	김정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메시지로 한국의 역사를 이끌어온 전통음악의 이미지를 노래 속에 넣고자 이렇게 작곡을 하였습니다. 가야금과 해금, 사물놀이와 판소리 그리고 피아노와 string pizz가 잘 어우러져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뜻을 전통음악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음악처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최우수상 (2명)	정문규	풍요로운 우리 가락	우리나라의 전통악기를 사용하여 밝고 정겨운 느낌을 내려고 하였으며 국가가 있기에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어서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므로 친근한 이웃 같은 느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이정	합(合)	궁중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전통 악기 박(拍)으로 첫 순간의 주목도를 높이고, 마지막에도 같은 소리를 배치해 국민과 정부가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짐을 담았습니다. 한국 민요의 오음음계(도·레·도·파)를 바탕으로 기억하기 쉬운 멜로디를 만들고, 전통과 현대의 음색이 하나의 선율로 합(合)을 이루듯 국민의 다양한 뜻이 조화를 이루는 국민주권정부를 표현했습니다.
우수상 (5명)	이동우	대한징글	[국가 - 애국가 멜로디, 국민 - 아리랑의 리듬, 나 - 화성]으로 음악의 3요소(멜로디, 리듬, 화성)를 해석하여 작곡했습니다. 곡의 키는 공식 국가 제창에 쓰이는 애국가의 'A장조 키'이고 반도체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선도하는 의미로 Digital Pluck 사운드, 신바람 나는 정부의 의미인 장구, 전통악기인 가야금 소리로 편곡하였습니다.
	김민기	얼	한국 전통 악기를 사용하여 예로부터 전해오는 한국인의 얼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외세로부터의 잦은 침략, 위협이 있어왔던 대한민국이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의 순간마다 힘을 합쳐 버텨 왔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시련이 닥쳐 올 때마다 선조들처럼 단단히 버티자는 뜻으로 국악 악기들을 이용하여 간단한 징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김은호	모두	다 같이 함께하자는 의미의 제목은 모두이며, 동서양 악기가 잘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채선미	국민휘파람	누구나 한 번쯤 흥얼거려 본 휘파람. 국민 모두가 쉽게 기억하고 함께할 수 있는 멜로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공동체의 정서에서 영감을 얻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누구나 함께 흥얼거릴 수 있는 선율로 표현했습니다.
	이현동	희망을 잇는 울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가치를 짧고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따뜻한 음색의 마림바로 밝고 희망적인 느낌을, 전통 악기인 가야금을 활용해 친근함과 한국적인 정체성을 담았으며, 간결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멜로디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소통하고 나아가는 진취적인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